

북미 원주민을 주님 품으로

북미원주민 선교사 이진호, 신해숙 기도편지

3031 4th Avenue, Port Alberni
BC V9Y 2B8 CANADA

2017년 1월 1 일

2017-07호

통권 31호

(Tel)070-8264-8742 [H] 1-250-913-0937 (E-Mail) gnm.mike@gmail.com

'북미원주민을 주님 품으로'는 북미원주민과 나아가 세계 모든 원주민을 향한 선교비전을 후원자들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이진호/신해숙(유빈, 다희, 찬영)가족이 고국과 캐나다에 계신 교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특히 전에 없는 추위와 당혹스러운 사회전반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2016년을 선하게 마무리 하고 계실 고국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전합니다. 2016년 또한 환란 중에도 공활을 잊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세모 신년 벽두에 포트 알버니에 소식을 전합니다.

Totem pole(토템폴)



이곳 포트 알버니(Port Alberni) 원주민 씨샷(Tseshat First Nation's Bamd)원주민 밴드는 토피노(Tofino)로 향하는 4번 도로와 소매스강(Somass River)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조로 훌륭히 지어진 건물 경내 야트막한 돌 언덕 위에는 원주민들의 상징 토템 폴(Totem Pole)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토템 폴 맨 위에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저는 새벽녘에 원주민 리저브를 돌아보며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토템폴 밑에서 목이 꺾이도록 치켜다 본 그 끝에는 2016년 마지막 날의 기도를 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기다림으로 열매를 기다립니다.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이가 어떠한 수확을 주실지 알지 못하는 기다림에 기대와 소망이 열매 맺기도, 어느 날은 불안과 초조로 열매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해의 세모에 부질없이 그 아침에 토템 폴을 의지해 하늘을 치켜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한적한 곳을 찾으시던 주님이 잊히질 않아 이곳 원주민들의 땅 한 복판 낮은 언덕에 한적함에서 있었습니다.

돌아보는 한 해에 잔상에 만감이 오고 가며 이내 감사와 감사의 날들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감사로, 하늘을 오랫동안 주시한 탓인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상징적으로 원주민들은 독수리를 땅에 사람의 기도를 하늘에 신께 올려 전달하고 그 곳 하늘의 응답을 이 땅에 기원자에게 전달하는 사자(messenger)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닿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 마리 새가, 그 뜻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에 의해 나무기둥 끝에 새겨져 하늘을 활공하는 모습을 올려다봅니다.

요벨 펠로우십 센터(Yobel Fellowship Centre)

실로, 주님의 은혜요, 이외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선교센터는 원래 이곳에서 신년 음악회, 여러 모양의 축하여과 파티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현판에는 바바리안 센터(Barbarian Centre)라고 쓰여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단어 'Barbarian'는 아시는 데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에 주민으로 사는 나는 이 땅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하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본향으로 언젠가는 떠날 사람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 지목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원주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처음 와서 센터의 본이름을 접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동역자이신 조용완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택한 선교회 이름이 이토록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밖 이방인에 뜰에 머물던 우리도 그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에 참다운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 그 안에 안식(요벨, Yobel)하는 나와 같은 앞선 자들이 나중 되어질요 믿음의 이방인인인 저들 원주민들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센터가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포트 알버니에 생명의 강 소메스 강에서 서 있는 두 조각상.



앞서 언급한 4번 국도는 이곳 아일랜드를 가로지르는 19번 고속도로에서 Tofino(토피노)를 이어주는 250km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4번 도로는 포트 알버니를 관통해 Tofino와 를 이어 주는 메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Tofino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소메스 강과 평행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는 높이 10여미터의 남녀 원주민 조각 상이 있습니다. 이 두 조각상은 두 손을 뻗어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듯, 반기듯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원주민들의 토템폴 양식을 띠고 있으나 다른 폴들이 여러 동물들을 나열하여 선뜻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태라면 이 두 토템폴은 여지없는 남녀 상이다. 그런데 4번 국도를 향해 손을 뻗은 남자상과는 다르게 여인상은 옆 소메스 강이 향하는 바다를 향

하여 손을 뻗고 있다. 이 의미는 4번 국도를 이용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환영의 인사요, 다음으로 이제 방문을 맞히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여성상이 반기는 것은 태평양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연어를 환영하는 팔과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는 연어 치어들에게 잘 자라 다시 돌아오라는 당부를 전하기 위해 팔을 뻗고 있다. 이렇게 두 남녀 상은 이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소망을 한 몸에 표현하고 있는 조각상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곳에 원주민들은 짧게는 지역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인한 상처와 멀리 조상의 땅을 빼앗긴 한을 품고 사는 이들이다. 복음으로 상처를 받아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그 속내에는 우리의 창조주요 모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회복시키길 바라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을 환영하는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도움이 실로 여러모로 간절히 필요한 곳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상처 받은 이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 재능들이 발휘되어 하나님을 보여줄 몸짓 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될 물질도, 주님처럼 작정된 기도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손길들과 마음, 기도를 환영하는 남녀 상은 원주민들의 마음이 되어, 아니 주님의 마음의 되어 이곳에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더우나 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장소 포트 알버니에 2017년도 동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 주시고 손길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의 인사를 대신 합니다.

기도제목

1. 포트 알버니 지역에 리저브내에 교회 개척 (Nuu-chah-nulth, Hupacasath 원주민 부족)
2. 어린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협력하는 교회들과 개인, 단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3. 공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정기적인 후원과 협력인들을 속히 붙여 주시옵소서.
4. 예배가 더욱 활성화 되게 해주시옵서서
5. 9월 중에 시작될 다문화 사역에도 포트 알버니 지역 내에 다문화의 개인, 단체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정기 모임이 선교로 이어 질 수 있도록
6. 한국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빠른 쾌유와(고관절, 선명증 치료)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